

#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임미선

전북대학교 교수, 한국음악학 전공  
lms626@hanmail.net

- I. 머리말
- II. 경기민요적 음악현상
- III.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 IV. 복합적 음악현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전북민요는 남도계면조의 권역에 속하지만, 인접지역의 음악적 상호 작용에 의한 전이 양상을 보여주는 예가 많다. 이러한 전북민요의 특징적인 현상에 대한 논의가 이보형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sup>1)</sup> 이후 김익두는 ‘노동요’를 중심으로 전북민요의 권역을 5개로 설정하고 그 특성을 살핀 바 있다. 그는 전북민요의 권역을 동북부 산간권, 동남부 산간분지권, 서북부 평야권, 서남부 평야권, 서해 도서권 등 5개로 나누었다. 동북부 산간권은 메나리토리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고, 동남부 산간분지권과 서남부 평야권은 육자배기토리가 강한 지역이며, 서북부 평야권은 메나리토리와 육자배기토리의 혼효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보았다. 서해 도서권에 대해서는 ‘섬토리’라 부를 만한 강렬하고 역동적인 음색과 창법 등이 있는 점을 특징으로 삼았을 뿐, 경기도 및 동부지역의 음악적 영향관계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sup>2)</sup> 김익두의 민요권 설정은 전정구의 선행 연구와 동일한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sup>3)</sup>, 전북의 일노래를 동부산간지역과 서부평야로 나누고 그 가창방식에 대한 차이를 살핀 내용 그 대부분이 그러하다. 특별히 산간지역의 발일노래는 발매기소리뿐이지만, 평야지역의 논일노래는 다양한 노래가 불리고 있는 점 외에 평야지역의 논일노래가 남도계면조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산간지역의 발일노래가 메나리토리로 되어 있는 음악적 차이를 추가하여 제시하였다.<sup>4)</sup>

\* 이 글에서 활용한 자료 중 일부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토속민요 연구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그 결과보고가 완료된 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지금까지 투고를 미루어왔음. 최근에 전라북도 농요에 대한 논문(강재욱, 「전북지역 논매는 소리의 분포와 토리 활용 양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이 나왔고, 그 가운데 필자의 연구 논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2007년에 발표한 필자의 선행 연구가 논급되지 못하였음. 필자의 전라북도 민요의 선법적 다양성에 대한 논문 발표가 선행하였으므로 이 글에서는 강재욱의 석사논문에 대한 전적인 검토는 생략하고자 함. 2007년 2월 22-23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7차 한국민요학회 동계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1)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문화재연구소, 1992), 「육자배기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24집(한국국악학회, 1996).
- 2) 김익두, 「전북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 『국어국문학』 116집(국어국문학회, 1996); 김익두, 「전라북도의 민요」, 『한국국악연구』(집문당, 1997), 147-173쪽.
- 3) 전정구, 「일노래 연구-전북지역 농업노동요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30집(한국언어문학회, 1992).
- 4) 김익두, 「민요의 시학과 정치학 · 전북지역 노동요의 공연학적 · 민족음악학적 해석」, 『한국민속학』 30호(한국민속학회, 1998). 이러한 김익두의 관점은 노복순이 작성한

전북민요에 대한 이보형·전정구·김익두 등의 선행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전북지역의 민요에는 남도계면조 외에 경기민요 선법(경토리), 동부민요 선법(메나리토리) 등 다양한 선법이 존재하는 ‘다양성’과 ‘복합성’으로 집약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전북민요에 대한 기존의 국문학적 연구는 대부분 지역적으로 민요권을 설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이 노동요로 국한되어 있고, 전북민요에 나타나는 타 지역 음악어법의 혼효현상을 동부민요 선법만으로 한정시켰을 뿐이어서 경기민요의 음악현상은 논의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음악적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북민요 전반으로 연구 대상을 확장시켜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런 까닭에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선법적 다양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전라북도 민요에 ‘육자배기토리’라 일컫는 남도계면조 외에 경기, 동부지역 민요 선법이 전북민요에 혼재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여 경기민요와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서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선법적 다양성과 아울러 남도계면조와 타 지역 민요의 선법적·창법적 혼효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에 대한 전반적 양상은 경기,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두 선법에 대하여 먼저 각각의 전형적인 형태로 불리는 전북민요를 소개하고, 그 변형에 해당하는 여러 형태의 민요를 유형화하여 그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경기민요적 음악현상

### 1. 경기민요 sol 선법의 형태

무주군 구천동 산곡리의 「화투타령」은 sol-la-do'-re'-mi'의 전형적인 경기민요의 sol 선법으로 되어 있다.<sup>5)</sup> 1·3·5·7·9음을 노래하는

전북민요의 음악적 특성에 대한 논의에 반영되었다. 노복순, 『한국민요대전-전라북도 민요해설집』(문화방송, 1993).

5) 이보형은 이러한 창부타령형의 구조를 ‘진경토리’라 하였다. 『서도민요와 경기민요의 선율구조연구』(문화재연구소, 1992), 59쪽.

악보1-무주군 구천동 산곡리 「화투타령」<sup>6)</sup>

창: 김팔영  
채보: 김혜정

♩ = 60    실음은 10도 아래

'일 월 송 송 속 썩 던 마음 - 이 월 - 매 조 예 맺 어 놓 고

삼 월 사 쿠 라 산 만 한 마음 - 사 월 - 혹 사 리 허 사 로 다

오 월 난 초 나 는 - 나 비 - 유 월 - 목 단 에 춤 잘 치 고

칠 월 흥 돼 지 흙 로 만 누 워 - 팔 월 - 궁 산 이 달 도 밝 고

구 월 국 화 군 었 던 마음 - 시 월 - 단 풍 에 뚝 떨어졌 네

어 리 씨 고 나 좋 다 조 흙 씨 구 - 어 리 씨 구 나 좋 구 나 조 흙 씨 구

부분은 mi'가 2박자 이상 연속적으로 출현하다가 뒷부분에서 mi'-re'-do'-la-sol로 하행하는 형태로 선율이 거의 같다. 2·4·6·8월을 노래하는 부분은 sol-la-do'-re'-mi'로 상행했다가 다시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노래의 끝 부분 “어리씨고나 좋다 조흙씨구~”는 리듬이 세분되어 엮여 부르는 느낌을 준다.

전북민요에서 전형적인 경기민요 sol 선법의 노래는 악보1의 「화투타령」과 같은 유희요보다 들노래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논매는소리(「사호소리」, 「방개소리」),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 논매는소리(「아래타령」),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논매는소리(「방개타령」)<sup>7)</sup>,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김매는소리(「연계타령」<sup>8)</sup>), 군산시 탑동 김매기

6)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도민요(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음반 자료 시리즈 39)』(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37쪽에 수록된 자료임.

7) 남원군 대강면 사석리의 논매는소리 「방개타령」은 mi'-re'-do'-la-sol의 골격으로 되어 있다. mi-la의 4도 진행의 주로 쓰이며 do'-la의 3도 진행은 주로 하행시에 나타난다. 상행선율은 sol-do'-mi'의 4도+3도 진행이 골격을 이룬다. 하행선율은 남도계면조의 꺾는음과 떠는음이 약화된 형태이고, 상행선율은 동부민요에 가까우면서 re'-do'의 진행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남원군 대산면 감동리의 논매는소리의 경우도, 위의 「방개타령」과 유사하면서도 동부민요적 요소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 『남원지역 사람들의 삶과 노래』(국립민속국악원, 2001), 55쪽, 60쪽 참조.

악보2-옥구군 대야면 논매는소리 「진방아타령」 / SNU 부록악보18-19)

창: 이창대 외(1991.1)

채보: 김인숙

(매) 미 렵 - 산 아 - - - 어 허 - -  
 꽃 을 - 달 어 허 라 만 경 창 - 파 -  
 선 유 - 가 - 자

(반) 에 - 해 야 - - 하 - 아 하 - 하  
 에 해 - 해 해 에 야 아 하 아 아 -  
 아 해 아 허 허 해 에 영 - 여 으  
 오 호 - 호 - 라

소리(「방아타령」, 「오호타령」), 익산의 「진방아타령」 등을 들 수 있다. 전북의 동북·동남 지역에 위치한 진안, 장수, 남원 등지에서 논매는소리로 불리는 「양산도」<sup>10)</sup>도 대부분 경기민요 sol 선법으로 되어 있다.<sup>11)</sup>

군산시 옥구군 대야면의 논매는소리인 악보2의 「진방아타령」은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며, 자유 리듬의 형태로 되어 있다.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 모두 sol-la-do'-re'-mi' 5음을 고루 쓰는 형태로 되어 있고 모두 sol로 종지한다. 간혹 do'를 가볍게 요성하지만 남도민요<sup>12)</sup>에서 밑음을 굵게 요성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군산시 옥구군 대야면 탑동마을의 김매는소리인 「만경산타령」은 sol-la

8)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말천방(秣川坊) 농요 중의 하나로 김매는소리에 해당한다. 초벌 김매는소리인 「문열가」에 앞서 부른다. 두월리 말천방 농요는 제1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9년)에 참가한 바 있다. 백대웅, 『전통음악개론』(어울림, 1995), 278쪽 악보 참조.

9) 이 글에서 사용한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의 『한국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 악보자료는 SNU로 나타냄.

10) 이 지역에서 「방개소리」도 압도적으로 많이 불린다. 「싸호소리」는 김매기의 마지막 소리로 전북지역에서 널리 불리고 있다.

11)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보고서)』(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08) 37쪽, 〈악보74〉 참조.

12) 이보형은 남도민요의 음조직을 ‘육자배기토리’라 명명하고 mi-(sol)-la-si-do'의 4~5 음계와 mi-(sol)-la-si-do'-re'의 5~6음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전자가 ‘육자배기토리’의 기본형(단순형)으로 mi-la-si 3음이 주요음이고 요성은 mi에 있다고 하였다. 후자는 타 지역 민요와의 상호 작용에 의한 변이형(복합형)으로 파악하였다. 이보형, 「육자배기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24집(한국국악학회, 1996), 14~22쪽.

악보3-군산시 대야면 탑동마을 논매는소리 「만경산타령」

창: 고상락(2004.8)

채보: 류장영

나 - - 해 - - 해 - - 해 - -

은 - - 들 해 - - 에 - - 에 이 가

산 아 지 로 구 - 나 아 - -

잘 들 을 허 네 - 잘 들 을 - 허 네

우 리 - 농 군 들 농 가 - 소 리 를 잘 들 을 허 네

-do'-re'-mi'의 음구조로 되어 있는데, sol-do'-re' 3음이 주로 쓰이며, 간혹 sol을 요성하고 do'로 종지한다.<sup>13)</sup>

「만경산타령」은 창자에 따라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선법에 차이가 있다. 탑동마을<sup>14)</sup>의 선소리꾼으로 유명했던 고관덕이 부른 경우에는 경기민요 선법과 남도계면조로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가 각각 다르다(참고악보1 참조).<sup>15)</sup> 그러나 악보3의 고상락 창(唱)의 경우에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 대부분이 경기민요 sol 선법으로 되어 있다. 받는소리에서 간혹 re'에 짧은 전타음이 붙고 청(key) 바뀌는 “산아지로”에서 남도계면

13) 이보형은 이러한 형태를 ‘2차경토리’로 명명하고, 그 종지음이 sol인 것을 ‘만경산형’, la인 것을 ‘성주풀이형’이라 하였다. 후에 ‘2차경토리’를 경토리의 남부 전이형이라는 의미에서 ‘남부경토리’라 명명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문화재단연구소, 1992), 61쪽 및 이보형, 「토리의 개념과 유용론」, 『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음악학논총』(소암권오성박사화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2000), 530-531쪽.

14) 탑동마을의 들노래는 1974년 제1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옥구들노래’로 참가하여 단체상과 개인상(고관덕)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모심기소리로 「장사소리」, 김매는소리로 「만경산타령」 「오호타령(방아타령)」 「자진산타령」 「싸오소리(애암소리)」 등이 있다.

15) 「만경산타령」에 견주어 ‘빠른 산타령’이란 뜻으로 불리는 「자진산타령」은 남도계면조로 되어 있다. 동일한 사람이 부른 것임에도 곡에 따라 선율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조의 창법이 잠시 나타나지만, 남도계면조에서와 같은 꺾는 음의 사용이 두드러지지 않다.

## 2. 경기민요 sol 선법의 변형

전북지역에서 경기민요 sol 선법의 선율을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그것에 남도계면조 또는 동부민요 선법의 요소가 섞여 있는 민요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형태의 민요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경기민요 선법+남도계면조의 혼합형

전북민요 가운데 경기민요 sol 선법과 남도계면조가 혼합된 형태를 띠는 것으로는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의 「꽃방아타령」, 「에야타령」, 「성개타령」, 남원 대강면 평촌마을 「이슬털이」,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각동마을의 「긴소리」 등이 있다.

악보4의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의 논매는소리(「꽃방아타령」)는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구별 없이 창자들이 모두 같이 부른다(제창). 첫째 단 A-B-d-e-g의 음구성은 둘째 단부터 음고가 낮아지면서 제4-5 음 사이의 음정이 단3도에서 장2도에서 단3도로 바뀐다. 전반적으로 D-E-G-A-B(sol-la-do'-re'-mi')의 5음음계가 골격을 이룬다. 특히 둘째 단의 “올라서어 올라서어”의 부분에서 경기민요의 특징적 선율이 잘 나타난다. 다만 셋째 단에서는 그 구조가 다소 불분명해지기도 하는데, 특히 sol ↔ do'의 4도진행이 쓰이다가 sol 선법에서 la 선법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기민요 sol 선법의 형태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종지음이 re'로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부르지 않으며 유절 형식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점 등에서 여느 경기민요와 다른 양상이 드러난다.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의 「에야타령」과 「성개타령」은 경기민요 sol 선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남도계면조의 요소를 쓰지 않고, 꺾는음의 사용도 약화되어 있다. 이렇듯 학촌마을의 들노래(창: 최재복)는 경기민요 sol 선법이 대부분이고, 남도계면조를 섞어 부르는 경우는 적다. 남원 대강면 평촌마을 「이슬털이」 역시 경기민요 sol 선법이 우세한 형태를 보인다.

악보4-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 논매는소리 「꽃방아타령」/ SNU 30쪽 악보46

제창(1990.12)

채보: 장휘주

♩=115-118

꽃 으 - 으 을 꺾 어 어 어 노 오 오 오 히 이 어 어 어 어 어 - 꼬 웃 고 오

사 아 아 안 에 에 올 라 서 어 올 라 서 어 어 어 히 어 히 히 어 히 어 가 아 안 다

아 리 씨 구 나 야 야 지 리 씨 구 나 야 야 지 리 가 조 온 가

조 오 웅 네 에 하 하 영 지 리 씨 조 리 씨 구

악보5의 고창군 해리면의 「긴소리」는 선후창으로 불리는데, 받는소리 가 메기는소리 중간에 짧게 삽입되다가 끝 부분에만 1.×6으로 길게 받는다.<sup>16)</sup> 메기는소리는 경기민요 sol 선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비해 받는소리는 불분명하다.

남원시 덕과면 고정리 논매는소리(「느림지기」)는 초벌, 두벌매기 때에 부르는데, 메기는소리는 남도계면조로 부르지만, 받는소리는 경기민요 sol 선법으로 부르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후렴구 ‘아리씨구나 헤시고 종을시고’는 임실군과 순창군의 주된 논매는소리인 「문열가」의 사설과 동일하다. 초벌, 두 벌, 세 벌 맬 때에 모두 부르는 「문열가」는 경기민요 sol 선법의 선율에 자유리듬으로 되어 있다. 「문열가」와 사설이 유사하면서 그 선율이 다른 것으로는 임실군, 순창군의 「배꽃타령」, 「노향방초」, 「아래타령」, 「꽃방아타령」, 정읍시의 「들노래」, 남원군의 「이슬털이」, 「느림지기」, 고창군의 논매는소리 등이 있다. 이들 소리는 임실군과 순창군을 벗어나면서 「문열가」로 명명되지 않지만, 대부분 경기민요 sol 선법에 자유리듬으로 부른다.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 안하마을의 논매는소리(「문이가」)는 경기민요 sol 선법 선율구조이면서 간혹 sol-do'로 직접 상행하고, do로 종지하는

16) 이러한 논매는소리 유형은 다른 소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  
 구소,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지원연구비 한국  
 학지원사업 최종보고서 IV), 39쪽 참조.



악보5-고창군 해리면 「긴소리」 / SNU 39쪽 악보76

창: 김인옥 외(1991.4)

체보: 장휘주



점은 남도계면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겠다(경>육). 순창군 유등면, 풍산면, 팔덕면의 문열가는 모두 경기민요 sol 선법이 골격을 이룬다. 그런데 안하마을의 논매는소리(「배꽃타령」),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화룡마을의 논매는 소리는 동부민요 선법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역의 논매는 소리의 선율은 남도계면조가 우세한 정읍시의 논매는소리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외 익산시의 「등짐노래」, 「벼베는산야」 등도 경기민요 sol 선법과 남도계면조의 혼합형에 속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북에서 경기민요의 sol-la-do'-re'-mi'의 5음음계 또는 경기민요의 음악현상이 나타나는 민요는 익산·군산·임실·김제·진안·장수·순창 등지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익산시의 삼기마을의 「등짐노래」, 「진방아타령」, 「벼베는산야」, 군산시의 옥구군 대야면 탑동마을의 논매는소리(「오호타령」), 신덕면 수천리 방개타령, 삼계면 두월리의 김매는소리(「사랑가」), 지사면 안하리 안하마을의 논매는소리(「문이가」), 진안군 마령면 원평지의 「양산도」, 마령면 원평지의 「늦은방개타령」, 산서면 이룡리의 논매는소리(「방개타령」) 등이 있다. 특히 순창은 전라남도과 인접해 있는데 경기민요 sol 선법이 많이 쓰이는 점이 주목된다. 순창 유등면 건곡리 학촌마을의 「문열가」, 「그물타령」, 「꽃방아타령」, 「아래타령」, 「홍글타령」, 「노향방초」, 고창군 해리면의 「긴소리」도 이에 해당한다.

전북민요 중 경기민요 sol 선법의 기본형과 그 변형형의 음구조를 정리하면 악보6과 같다.

악보에서 ①과 ②는 경기민요의 sol 선법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sol-la-do'-re'-mi'에서 종지음이 sol 또는 do'로 되어 있는 ①, ②와 달리

## 악보6-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민요 sol 선법의 형태



④는 종지음이 la이다. 경기민요의 sol 선법으로 되어 있으면서 la로 종지하는 형태는 전북민요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④는 sol-la-do'-re'-mi'에서 밑음인 sol에 요성이 쓰이는 형태로 경기민요 sol 선법에 남도민요의 창법이 가미된 형태이다. ⑤는 경기민요 sol 선법 sol-la-do'-re'-mi'의 구조에서 상행시에 sol을 거치지 않고 sol-do'로 진행하는 형태로서 남도계면조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 2) 경기, 동부민요 선법의 혼합형<sup>17)</sup>

경기민요 sol 선법과 동부민요 선법이 섞여 있는 대표적인 민요로 익산시 삼기마을<sup>18)</sup>의 「질꼬냉이」가 있다. 장원례에서 부르는 「질꼬냉이」는 경기민요 sol 선법의 선율에 이어 자연스럽게 동부민요 선법의 선율로 연결된다.

경기민요와 동부민요의 선법이 혼재된 민요의 경우, 경기와 동부민요 중 어느 쪽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는지 판별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다. 특히 4도(sol-do'또는 mi-la)의 진행에 장2도의 음이 출현하는 경우는 전자와 후자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경기민요의 영향이 큰 경우는 sol-do+re'+mi'의 진행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형태에 남도계면조의 창법이 가미되더라도 꺾음음의 사용이 자제되어 있고 간혹 요성이 쓰이지만 강하지 않다.

## 3. 경기민요 la 선법의 형태

전북민요에서 경기민요 「한강수타령」, 「경복궁타령」, 「베를가」 등과 같이 la-do'-re'-mi'-sol' 5음음계 계면조로 된 노래들이 있다. 임실군

17) 전북민요에서 경기, 동부민요 두 지역의 음악적 현상이 혼합된 경우는 편의상 본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다룬다.

18) 익산시 삼기마을의 들노래 8곡은 남도계면조를 비롯해서 동부민요 선법, 경기민요의 5음음계 sol 선법 등 다양한 선율구조를 보인다.

악보7-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방아타령」

창: 김준성  
채보: 류장영

A ♩ = 100, 맑은 중여리

1. 남 부 - 혼 어 러 으 열 고 바 하 - 으 래 - 치 히 니  
제 - - 떠 - 형 사 - - 산 천 - 이 바 해 밝 - 아 - 들 - 오 혼 다  
에 이 해 해 이 얼 사 좋 - - - 다 등 다 쿵 에 지 화 자 - 좋 을 씨 고

B

2. 배 자 - 할 자 하 으 한 다 배 해 - 이 잘 - 자 한 다  
남 - - 위 - 헌 - 동 분 안 - 큰 아 - 기 배 해 배 해 자 - 할 - 자 한 다  
에 해 해 이 어 리 싸 조 - 호 우 오 - 타 등 다 쿵 에 지 화 자 - 좋 을 씨 고

삼계면 두월리의 「방아타령」, 「연계타령」이 이에 해당한다. 두 패 교환창으로 부르는 악보7의 임실군 삼계면 두월리 「방아타령」<sup>19)</sup>은 la-do'-re'-mi'-sol'의 la 선법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후렴구의 후반 “등다쿵에 지화자하종을씨고”의 부분은 5음음계 la 선법이 분명하게 나타난다.<sup>20)</sup> 경기민요의 경우 종지음이 la 또는 do'로 되어 있는 것<sup>21)</sup>과 달리 두월리 방아타령은 re로 종지한다.<sup>22)</sup>

악보8의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석치마을의 논고르는소리는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부르는데, 메기는소리의 길이가 일정치 않으며 la와 do' 두 음을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비록 la-do'-re'-mi'-sol' 5음음계 계면조 형태가 뚜렷하지 않지만, 음구조나 창법적 요소에서

19) 흔히 후렴구를 받는소리로 부르는 것과 달리 두 패가 각각 후렴구까지 모두 부른다.

20)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민요 마을』(전라북도립국악원, 1998), 163쪽.

21) 이보형은 la-do'-re'-mi'-sol'의 음구조를 ‘반경토리’라 명명하고, la로 마치는 제1형과 re로 마치는 제2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문화재연구소, 1992), 60쪽.

22) 전라북도립국악원, 앞의 책, 163-164쪽.

악보8-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석치마을 논고르는소리 / SNU 8쪽 악보3

창: 이용복 외 (1991.1)

채보: 장휘주

♩ = 50

(매) (반)

어 어 기 하 야 어 어 기 하 야

(매) (반)

이 해 저 해 어 어 어 기 하 야

(매) (반)

다 알 기 행 가 어 어 기 하 야

(매) (반)

여 기 도 오 오 파 고 저 기 도 오 파 고

8 (반)

어 어 기 하 야

남도계면조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므로 경기민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민요의 음악 양상은 대체로 sol-la-do'-re'-mi'의 sol 선법 혹은 그것이 변형된 것이 많다. 그 밖에 간혹 la-do'-re'-mi'-sol' 5음음계 계면조에 가까운 la 선법의 형태 및 그것이 변형된 형태도 보인다. 경기민요의 음악현상은 익산·군산·임실·진안·장수·순창·남원·무주 등 비교적 널리 나타난다.

### III. 동부민요적 음악현상

#### 1. 동부민요 선법의 형태

전라북도에서 모심는소리로 널리 불리는 「상사소리」가 완주군과 무주군에서는 논매는소리로 불린다. 완주군의 「상사소리」는 남도계면조로 되어 있으나, 악보9의 무주군 「상사소리」는 전형적인 동부민요 선법<sup>23)</sup>으

악보9-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울오마을 논매는소리 「상사소리」 / SNU 54쪽 악보98

창: 정진상 외(1991.11)

채보: 장휘주



로 되어 있다.

전북민요 중에서 동부민요 선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의 논매는소리(「매화타령」, 참고악보2 참조),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의 논매는소리, 옥구군 대야면 보덕리 안정마을,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석한마을의 벼베는소리(「나락베는소리」), 김제 청하면 논매고오는소리(「둔네소리」)<sup>24)</sup>, 무주군 무풍면의 논매는소리 등이 있다. 이들 민요는 mi-la-do' 3음이 주로 쓰이면서 남도계면조의 창법적 특징이 배제된 동부민요의 선법이 근간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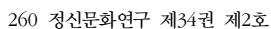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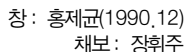
악보10의 무주군 안성면의 모심는소리는 mi-(sol)-la-do'-(re')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mi-la-do' 3음이 주로 쓰이고 간혹 re'가 출현한다. 4도+3도가 기본 골격이고, mi에서 la로 하행할 때, sol을 거치는 동부민요적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예는 남원시 덕과면의 모심는소리(참고악보3 참조), 김제군 청하면 월현리 벼베는소리(「나락베는소리」)에서도 보인다.<sup>25)</sup>

23) 김영운은 동부민요를 '메나리토리'와 '어사용토리'로 구분하고, 상행시와 하행시의 음 구조가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메나리토리의 경우 상행시는 미-라-도-레-(미)의 4음음계로, 하행시는 미-레-도-라-솔-미의 구조로 보고, 라를 종지음, 미를 요성음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상행시에 생략되는 솔음은 하행시에 주로 경과음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반면에 어사용토리는 메나리토리의 최저음인 미가 반음 높아진 구조인데, 이를 도-레-미-솔-라로 보고, 도를 종지음으로 파악하였다(메나리토리가 상행시 최저음과 제2음이 완전 4도, 하행시 최저음과 제2음이 단3도인 것과 달리 어사용토리는 상행시 두 음이 장3도, 하행시 두 음이 장2도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29쪽). 메나리토리를 변격 라선법, 어사용토리를 정격 도선법으로 이해하였다.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8집(한국국악학회, 2000), 27쪽.

24)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보고서)』(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09), 부록 악보 중 악보66 참조.

25)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보고서)』(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09) 66-67쪽 악보 114 참조.

창: 이희원(1990.12)  
채보: 장희주



인 동부민요 선법에 해당한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전북에서 동부민요적 음악현상은 들노래를 비롯해 상여소리, 부녀요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난다.

## 2. 동부민요 선법의 변형

### 1) 동부민요+남도계면조의 혼합형

전북민요 중에서 동부민요 선법과 남도계면조가 섞여 있는 형태도 적지 않다.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의 「긴상사소리」, 김제시 만경읍 「물푸는소리」, 만경읍 대동리의 「진소리」, 익산시의 「만물산야」, 「타작소리」 등이 이에 속한다.

악보12의 김제시 만경읍 「물푸는소리」는 mi-la 위 4도진행이 골격을 이루면서 그것에 la-do'의 단3도 진행 또는 do'-si의 꺾임음이 섞여 쓰인다. 또한 둘째 단의 메기는소리에서 re'에서 do'로 흘러내리는 동부민요적 요소도 보인다. 4째 단의 메기는소리에서는 mi-la-do'의 골격과 do'-si-la-mi의 골격이 혼재되어 있다. 동부민요선법이 전북으로 전이되면서 re'가 do', do'가 si로 낮아지는 현상이 엿보인다.<sup>27)</sup>

악보12-김제시 만경읍 「물푸는소리」 / SNU 부록악보81

창: 이부후(1991.2)  
재보: 김인숙

27) 이보형, 「육자배기토리 음조적 연구」, 『한국음악연구』 24집(한국국악학회, 1996), 23쪽.

## 악보13-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진소리」

창: 이부희 외  
채보: 류장영



악보13의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의 김매기소리(「진소리」)는 남도계면 조와 동부민요 선법이 불분명한 형태로 섞여 있다. 대동리의 「진소리」는 mi-la의 4도 골격에 2도 또는 3도의 음을 쌓은 구조로 되어 있다. 즉, mi-la-si와 mi-la-do'가 혼재된 구조로 전자의 경우 si는 do'에서 꺾어내는 남도계면조의 형태를 띠고, 후자의 경우에는 do'는 re'에서 퇴성하는 동부민요 선법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la-mi로 하행할 때에 sol을 거치지 않고 직접 4도로 진행한다. mi-la-do'-re'의 구성음은 동부민요 선법과 유사하지만, 하행시 sol을 거치지 않고 la-mi로 직접 하행하는 예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임실 삼계면 두월리의 「상사소리」 이에 해당한다.

mi-la-si와 mi-la-do'가 혼재된 구조는 악보14의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구산마을의 「모심는소리」에서도 보인다. 이 노래는 mi-la-si의 구조로 시작되는데, si는 간혹 do'의 전타음을 수반하지만 남도민요에서와 같은 꺾는음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면서도 mi를 떨어주는 남도민요의 창법적 특징이 내재되어 있다. 셋째 단 중간 부분의 re'-do(e-d)와 do'-si(d-c)의 진행은 동부민요와 남도민요의 요소가 혼재된 요소로서 동부민요 선법의 전이형의 단면을 보여준다.<sup>28)</sup>

익산의 「만물산아」도 전체적으로는 동부민요 선법이 골격을 이루면서 부분적으로 남도계면조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그 외에 동부민요 선법과 남도계면조가 혼합된 소리에는 임실 운암면 선거리와 지사면

28)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보고서)』(서울대 동양음악연구소, 2009), 14쪽, 〈악보 11〉 참조.



악보14-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구산마을 「모심는소리」 / SNU 14쪽 악보11

창: 김봉환 외(1991.3)

채보: 김인숙

$\text{♩} = 85$

여 보 소      종 부 드 읍      말 드 읍      들 소

여 여 - - 여 허      여 - 루 - 상 사 - - 디 - 여

예 여 여 여 - 루 - 상 사 - - - 디 여

악보15-김제시 청하면 월현리 논고르는소리 / SNU 7쪽 악보2

창: 최병우 외(1991.2)

채보: 김인숙

$\text{♩} = 70-74$

어      허 양      아 하 하 등

어      허 양      아 허 헤 등

맞 퀘 서      허 오 소      맞 퀘 서 허 소

어      허 양      아 허 헤 등

관기리의 논매는소리(「방개소리」), 진안 마령면 평지리 논매는소리(「방개타령」), 김제시<sup>29)</sup> 청하면 월현리 「둔네소리」 등이 있다.

29) 김제시는 전북 서부 평야의 중심지여서 논농사와 관련된 민요가 많다. 모심는소리·논매는소리·벼베는소리·나락등짐소리·장원질소리 등이 있다. 김제의 농요는 육자배기, 진도아리랑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남도음악의 특징이 주를 이루나, 간혹 경상도나 강원도 지역의 동부민요의 특징이 섞인 선율도 있다. 가장방식은 선소리꾼이 소리를 메기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일정한 후렴구를 받아 부르는 ‘메기고 받는다(선후창) 형식’으로 부른다.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소동마을의 농요가 잘 알려져 있다. 이 마을에 전승되는 농요에는 논고르는소리·모심는소리·지심매는소리(진소리·둘레소리)·벼베는소리·등짐소리·산타령 등이 있다. 임미선, 『전북의 음악, 그 신명과 멋』(전라북도·국립민속박

악보16-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노루목 모찌는소리 「들어내세」 / SNU 9쪽 악보4

창: 정산옥·서도순 외(1991.1)

채보: 장휘주

♩ = 50

드 들어 어허 어 내 에허 세 드으 들어 허 어 나 내 허 어 세 에 허

오 오오 보 오호 오 자 아 래 에 히 드으 들어 어 어 나 내 세

나 루 아 아 허 어 가 어 어 가 락 에 쇠 이 이 어 가 라 악 에 에 히

나 알 래에 에 히 이 잉 가 아 래 히 끌 어 어 어 나 아 아 네 세

악보15의 김제시 청하면 월현리의 논고르는소리의 선율구조는 mi-la-do' 3음으로 되어 있다. do'는 re'에서 흘러내리지 않으며 la-mi로 하행할 때 sol을 거치지 않고 직접 4도 하행한다. 동부민요 선법의 특징이 약화된 형태라 하겠다. 그 밖에 동부민요 선법이 약화된 형태의 민요로 무주군 부남의 발매는소리 등이 있다.

진안군의 상여소리 「이하홍소리」는 동부민요와 남도계면도 선법이 혼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즉, do'-si의 퇴성을 쓰기 때문에 육자배기토리의 느낌을 주면서 la-sol-mi의 선율과 mi'와 do' 두 음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메나리토리의 느낌도 동시에 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곡은 메나리토리 바탕에 남도계면조의 창법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노루목의 모찌는소리는 남도계면조가 약화되어 동부민요 선법으로 전이된 형태이다.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악보16의 모찌는소리 「들어내세」는 4도+2도가 골격을 이루는 mi-la-si의 남도계면조로 되어 있지만, 흔히 남도계면조에서 쓰이는 꺾는음이 si에 쓰이지 않는다. 남도계면조와 동부민요 선법이 혼합된 형태로 la-mi로 하행 진행 때에 sol을 거치지 않는 경우와 동부민요 선법에서와 같이 la-sol-mi로 하행하는 경우가 공존한다. 이러한 남원시 산내면의 「들어내세」소리와

물관, 2008), 170쪽.

악보17-남원 아영면 성리 상성마을 모찌는소리 / SNU 10쪽 악보6

창: 노영현 · 백일귀 외(1991.1)

채보: 김인숙

♩ = 43-45

이 는 은 오오오오오에에에에에 다 아아아 가 모 르으 을 부우 우어 이어 서  
 모 짜 어 내 내 기 이이 이 나 아안 감 아알려 네  
 지 강 아아아앙에에에에에 다 가 사아 아앙초오오오오를 시입어 어  
 사아앙 초 오 오 비 비 기 이이 나 안 감 암 히 네

악보18-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석치마을 벼타작소리 「개상질소리」 / SNU 70쪽 악보118

창: 이용복 외(1991.1)

채보: 장희주

♩ = 55

에 해 야 뉘 잡 고 술 맥 자 에 해 야  
 여 기 로 오 치 고 지 기 도 치 서

같은 곡은 장수군 계북면, 무주군 설천면 · 무풍면 등에서도 보인다.

남원시 산내면의 모찌는소리에 비해 동부민요 선법의 성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남원시 아영면 섬리 삼성마을의 모찌는소리가 있다(악보17). 남원시 산내면의 모찌는소리에서는 mi에 요성이 쓰이지만, 아영면의 모찌는소리에서는 요성이 적게 쓰이며 4도+3도의 골격이 뚜렷하다. G-F-D의 동부민요적 현상이 보이면서 B를 C에서 꺾어내는 남도계면 조의 창법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노래는 무주군 설천면에서도 보인다.<sup>30)</sup>

악보18의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석치마을의 벼타작소리(「개상질소리」)

30) 같은 노래의 악보가 『MBC민요대전-전라북도』에 수록되어 있으나(CD 6-6), 이 악보는 동부민요 선법의 특징이 내재된 형태로 채보되지 않았다.

의 경우, 동부민요 선법의 mi-la-do' 골격에서 mi는 거의 쓰이지 않고 la와 do' 두 음을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서 la로 종지한다. 특별히 꺾어내거나 요성을 쓰지 않아서 남도계면조적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동부민요선법+남도계면조의 혼합형은 이보형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메나리토리의 육재백이토리화'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sup>31)</sup>

전북지역에서 동부민요 선법의 영향으로 남도계면조의 특징이 약화된 형태의 노래들은 군산·남원·임실·김제·익산·무주 등지에서 폭넓게 나타난다. 특히 무주지역의 경우 경상도와 인접한 지역은 지리적인 영향에 의한 동부민요 선법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부민요 선법의 영향이 뚜렷한 예는 장수군 장계리의 모심는소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 2) 동부민요 선법+서도민요 창법의 형태

전북민요 가운데 서도민요적 창법이 쓰이는 형태가 간혹 보인다. 장수군 계북면의 발매는소리는 mi-la-do' 3음이 골격을 이루면서, la-sol-mi의 하행진행을 하여 동부민요의 선법에 가깝다. 그러나 re'에서 do'로 흘러내리지 않아 동부민요 선법적 특징이 다소 약화된 형태를

악보19-장수군 계북면 발매는소리/SNU 부록악보82

창: 허기란(1990.11)

채보: 윤아영

♩ = 57

못 다 아아 메에 열 받 다아아아 - 메에열 - 라다 - 아아아 -

그으으음 - 보오음 채에르으으음 잃고오 마아안 가네 -

전주 - 주우소웅발 다아아파아아알 - 아서 - 어어

그으으음 - 보오음 채에가아아 내에다아앙인디 -

31) 이보형, 앞의 논문, 22-25쪽.

된다. 또한 요성이 do'에 자주 쓰는 것이 특징인데, 구조적인 차이가 있으나, 중간음을 요성하는 점<sup>32)</sup>에서 서도민요의 창법적 요소가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전북에서 동부민요의 음악적 현상은 특히 들노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북의 들노래에는 경기민요적 요소보다는 동부민요적 요소가 가미된, 다시 말해서 동부민요의 전이형태가 훨씬 많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동부민요 선법의 형태를 정리하면 악보20과 같다.

#### 악보20-전북민요에 나타나는 동부민요 선법의 형태



악보20의 ①은 동부민요의 전형적인 선법에 해당하는데, 전북민요에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형태뿐 아니라 ②-④와 같이 다른 구조로 변화된 형태도 많이 쓰인다. ②는 동부민요 선법의 주요 구성음인 mi-la-do' 3음을 주로 사용하면서 남도계면조의 요성이 가미된 형태이다. 동부민요 가운데 빠르게 부르는 노래에서 경과음이나 장식음이 생략되어 mi-la-do'의 3음만 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논고르는소리와 같이 빠르지 않은 한배로 부르는 노래에서 mi-la-do'의 3음이 주로 쓰이는 경우는 전북민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②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하행시에 sol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 노래에서 sol이 생략된 la-mi의 하행과 la-sol-mi의 하행이 공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③은 동부민요 선법에 남도민요의 꺾는음이 추가된 형태이다. ④는 동부민요 선법의 주요 구성음인 mi-la-do 3음에서 mi가 생략되어 la와 do' 두 음이 주로 쓰이는 형태이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동부민요의 음악 양상은 동부민요의 전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띤 것이 많다. 즉, mi-(sol)-la-do'-re'의 동부민요 선법에서 하행시 sol이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re'-do'로 퇴성하는 창법이 약화되어 있다.

32) 서도민요에서 밑음의 5도 위를 요성하는 것과 달리 4도 위 음을 요성한다.

## IV. 복합적 음악현상

전북민요에서 경기, 남도, 동부 등지의 음악적 요소가 혼재된 복합적 형태가 있다. 즉, 경기민요 sol 선법과 동부민요 선법의 혼합구조에 남도민요 또는 서도민요의 선법 및 창법이 섞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경기민요+동부민요+남도계면조적 창법의 혼합형이 주목된다.

악보21의 남원시 대강면 평촌마을의 「그물가」<sup>33)</sup>는 경기민요 sol 선법, 동부민요 선법, 남도계면조적 창법 등이 한데 섞여 있는 매우 특이한 형태이다. 첫부분은 mi'-sol'-la'로 진행하다 2째단에서 mi'-re'-do'-sol로 하행하여 경기민요적 구조를 보이다가 sol을 요성하면서 남도계면조의 창법이 가미된다. 3-4째단에서는 do'에 re' 전타음이 쓰이고 la-sol-mi로 하행하면서 동부민요 선법으로 바뀐다. 꺾는음이 잠시 쓰이기는 하지만 남도계면조와 같이 강하지 않다. 경기민요와 동부민요 선법이 선율의 골격을 이루면서 부분적으로 남도계면조의 꺾는음과 요성이 가미된 복합적 음악현상을 보여준다.

악보21-남원시 대강면 평촌마을의 「그물가」<sup>33)</sup>

창: 서득표 외  
채보: 류장영

33) 전라북도립국악원, 앞의 책, 366쪽.

## V. 맺음말

특정 민요 선법만으로 민요권을 분류할 때, 그 지역의 전형적인 형태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민요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자는 다양한 구조가 존재하는 지역의 민요에 대하여 특정 선법만으로 민요를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인식하여 민요의 지역적 분류 대신 선법을 중심으로 민요를 유형화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sup>34)</sup>

이 글에서는 남도계면조가 우세하면서도 경기와 경상도의 인접지역 음악의 영향이 큰 전북민요의 특징에 주목하여 인접지역 음악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기민요 또는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성이 전북민요에 적지 않게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민요의 음악 양상은 주로 sol 선법 형태가 지배적이고 그것에 남도계면조의 창법이 가미되기도 한다. 한편 la-do'-re'-mi'-sol' 5음음계 계면조에 가까운 la 선법의 형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전북민요에서 동부민요의 음악적 양상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전북민요에서 동부민요의 선법이 전이된 형태가 경기민요에 비해 훨씬 많고, 상여소리와 같은 의식요나 유희요에 비해 들노래에서 훨씬 그 양상이 강하게 나타남을 알게 되었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동부민요의 음악 양상은 동부민요의 전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띤 것이 많다. 즉 mi-(sol)-la-do'-re'의 동부민요 선법에서 하행시 sol이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re'-do'로 퇴성하는 창법이 약화되어 있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은 일노래의 성격에 따라 그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었고, 타 지역의 선법이 그대로 쓰이는 소리보다 남도계면조와 자연스럽게 섞여 불리는 소리가 훨씬 많았다. 「상사소리」는 경기, 동부민요의 현상이 고루 나타나는 데 비해 「방아타령」은 경기민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선율구조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다른 계열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

34) 임미선, 「황해도민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9).

어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들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상여소리는 대체로 남도계면조가 우세한 가운데 동부산간 지역에 동부민요 선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부민요의 영향이 비교적 큰 경우에는 대체로 하행시에 sol이 출현하고 mi-la(4도)+la-do'(단3도)가 골격을 이룬다. 이러한 골격에 남도계면조의 창법이 가미되어 mi에 요성이 자주 쓰이고, 꺾는음이 부분적으로 추가되면서 la-si와 la-do'의 진행이 공존하며 re'-do'로 흘러내리는 기능 약화된다. 동부민요와 남도계면조의 창법이 혼합된 형태는 이보형의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매나리토리의 육자배기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 동부민요적 음악현상은 어느 한쪽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두 지역의 음악적 요소가 혼합된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볼 때 익산·김제·진안·임실·장수 등지에 경기민요 선법과 동부민요 선법이 두루 공존하는 양상을 띤다. 진안·임실·순창 등이 경기민요 선법의 영향이 우세한 편이고, 무주·장수 등이 동부민요 선법이 우세한 편이다. 무주는 동부민요 선법이 우세하고, 전남과 인접한 순창군에서 경기민요 선법의 소리가 다수 불리는 특징이 있다. 익산은 경기,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이 공존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북민요에서 나타나는 경기민요 및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은 지역적 양상이 다르기도 하고 동일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가 공존하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참고악보1-옥구 탑동마을 「만경산타령」<sup>35)</sup>

창: 고관덕  
채보: 이보형

$\text{♩} = 50$

바 람 부 네 - 에 에 에 바 람 이 부 - - 네  
 농 촌 한 가 에 풍 년 바 람 부 - 네 아 하 아  
 나 하 하 하 에 - 에 에 에 이 에 에 에  
 오 호 은 둘 히 히히 에 에 해 해 해 이 가  
 산 하 지 로 - 구 - 나 아 하 아

참고악보2-진안군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마을의 논매는소리 「매화타령」

$\text{♩} = 60$

(받)

에 야 뒤 야 에 해 야 에 해 야 에 해 야  
 어 - - 히 뒤 야 에 무 화 메 화 로 구 우 나  
 (메)  
 가 면 가 고 말 며 는 마 하 알 지  
 네 해 농 따 라 시 해 해 나 도 나 가 하 안 다

35) 『브리태니커 팔도소리』(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1984), 32쪽 악보 참조.

♩ = 52

모 - 웃 다 - 하 아 알 데 - - 히 히 이 이 일 애 해 해 일 밭 - 바 아 아 알

다 - - 아 아 매 애 애 애 고 거 거 거 어 어 대 - 애 애 애

으 으 은 불 - 오 오 웅 치 애 물 이 이 코 오 가 아 아 네 -

## 참 고 문 헌

- 『남원지역 사람들의 삶과 노래』. 국립민속국악원, 2001.
- 『전라도민요(국립문화재단연구소 소장 음반자료 시리즈 39)』.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06.
- 『한국민요대전-전라북민요』. 문화방송, 1993.
- 김영운, 「한국 민요 선법의 특징-기존 연구 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28집, 한국국악학회, 2000.
- 김익두, 「전북민요의 전반적 성격과 지역적 특성」. 『국어국문학』 116집, 국어문화회, 1996.
- \_\_\_\_\_, 「전라북도의 민요」. 『한국구연민요』, 집문당, 1997.
- \_\_\_\_\_, 「민요의 시학과 정치학-전북지역 노동요의 공연학적/민족음악학적 해석」. 『한국민속학』 30호, 한국민속학회, 1998.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전라북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3.
-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한국 토속민요 연구-전라북도-』(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지원연구비 한국학지원사업 최종보고서 IV, 2008)
- 이보형, 『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재단연구소, 1992.
- \_\_\_\_\_, 「육자배기토리 음조직 연구」. 『한국음악연구』 24집, 한국국악학회, 1996.
- \_\_\_\_\_, 「토리의 개념과 유용론」. 『소암권오성박사회갑기념음악학논총』, 소암권오성박사회갑기념음악학논총간행위원회, 2000.
- 임미선, 「황해도민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9.
- \_\_\_\_\_, 『전북의 음악, 그 신명과 멋』. 전라북도 · 국립민속박물관, 2008.
- 전라북도, 『전라북도 농악 · 민요 · 만가』. 전라북도, 2004.
- 전라북도립국악원, 『전북의 민요마을』. 전라북도립국악원, 1998.
-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브리태니커 팔도소리』. 한국 브리태니커 회사, 1984.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남도계면조가 우세하면서도 경기도와 경상도의 인접지역 음악의 영향이 큰 전북민요의 특징에 주목하여 인접지역 음악현상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경기민요 또는 동부민요의 음악적 특성이 전북민요에 상당히 혼효(混效)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양상은 민요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 지역의 선법이 그대로 쓰이는 형태보다는 남도계면조와 자연스럽게 섞여 불리는 소리가 훨씬 많았다. 서로 다른 두 선법이 혼합되기도 하고, 남도계면조에 경기도·경상도 지역 민요의 특징적 시김새가 반영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메기는소리와 받는소리의 선법이 각각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서로 다른 형태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불린다.

경기, 동부민요의 음악현상은 들노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비교적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상여소리는 대체로 남도계면조가 우세한 가운데 동부산간 지역에 동부민요선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고일** 2011. 3. 20.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13.

**주제어(keyword)** 전북민요(jeonbuk folksongs), 남도계면조(Namdao Kyemyeon scale), 경기민요 선법(Kyunggi minyou style), 동부민요 선법(Dongbu minyou style)